

NEWS

벤·처·관·련

중기청, 경영혁신 분야 서비스 R&D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서비스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을 신규로 지원한다. 특히, 타 업종으로 파급효과

가 큰 R&D 과제를 우선 지원하여 제조업 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중소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 재경부·산자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범위는 제조업의 제품·공정개발에 대응하는 서비스업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신사업 모델, 서비스관리시스템, 선진물류시스템 등 30개 분야 중 기업 수요가 많은 10개 분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지식기반서비스업(컨설팅, 조사, 금융, 광고 등), 기술기반서비스업(콘텐츠, IT, 연구개발서비스 등)을 중점 지원하되, 제조업의 서비스 개발과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5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이번 과제는 60개 내외로 정해진다.

정통부, 중소기업 공공사업 전담범위 대폭 확대

정보통신부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의 하한 금액을 매출액이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8천억 원 미만 대기업은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참여하한제는 대·중소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공SW 시장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 대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정은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공공SW사업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참여기회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SW사업 규모의 변화를 반영하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나아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SW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10억 원 미만사업을 중소기업이 전담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SW산업협회와 함께 공공SW사업 발주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SW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산자부, 산업분야 RFID 본격 확산 방안 마련

유통·물류비 절감, 조달체계 효율화, 생산프로세스 혁신, 거래투명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의 산업분야 적용이 본격 추진된다. 산자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업계 간담회, 주요 산업별 RFID 적용 실태조사, 애로사항 분석 등을 토대로 조기에 전 산업분야에 RFID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FID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확산 방안은 6대 선도산업 중심의 확산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 국내표준 개발 및 산업별 가이드라인 보급, 세제지원 방안 검토, 업계 중심의 RFID 추진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NEWS

연·구·원

포스텍, 수학자들의 연구 허브 열었다

국내외 수학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학 연구 허브(hub)'가 포스텍에서 문을 열었다.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는 수학자 사이의

인적교류를 통한 지식 교환 및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포항공학연구소(PMI)'를 설립, 지난 9월 12일 개소식을 열었다. 이 연구소는 앞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방문, 새로운 연구방법과 내용에 대한 집중 강연을 개최하고 관련 연구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구 허브로서의 구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독립적으로 개최되던 학술회의와 워크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학제간 연구에도 기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송도테크노파크' 확대 조성키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원장 윤창현)는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내 국제적인 기술개발 거점 및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사업인 '송도테크노파크 확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송도테크노파크 확대사업'은 651,758㎡에 부지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R&D지구, 비즈니스지구,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R&D지구는 고밀도 벤처집적시설 및 도시형공장을 유치하

고 관련산업을 블록별로 유치하여 산업별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비즈니스지구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각종 지원기관을 유치하고 50층 이상의 고층빌딩을 건설하여 단지내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합지구는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로 잉글리쉬 존인 'FUN STREET', 극장 및 공연장인 퍼포먼스존 등의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 여성과학기술인지원 센터 유치

대전광역시가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유치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는 대전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전

담기관으로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교육, 취업지원과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는 서울, 경기지역 다음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관내 18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여성인력양성이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게 손꼽혀 왔다.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여건을 최대로 살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부지역 과학기술의 메카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 나노기술집적센터 개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재료 분야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대형 R&D 인프라인 광주 나노기술집적센터(이하 나노센터)가 포항센터에 이어 서비스를 시작한다. 산업자원부가 광주·포항·전북 등 3곳에 구축중인 나노센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재료의 ①차세대 신기술 개발 → ②상용화 → ③성능평가·표준화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핵심 나노기술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개소하는 광주센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필요한 나노 장비 및 공정을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지원까지 가능한 핵심연구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나노 박막/확산 공정기술 및 장비개발에 주력하여 2015년 장비분야 국산화율 50% 달성에 크게 기여 하게 된다.

'포항테크노 벨리' 경북 과학투어 인기코스

포항 첨단과학시설들이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과학투어에서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았다. 경상북도에서는 '2007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사이언스 경북'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4회에 걸쳐 320명(매회 1박2일, 80명)을 대상으로 '2007 Science GB Tour'를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경북 과학투어 첫 회 방문단이 지난달 14일 포항을 찾아 방사광가속기연구소, 경북과학연구원 등을 견학했고 이미 지난 여름방학기간 중 포항시가 실시한 과학투어 행사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참여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경북도, 바이오산업기술개발과제 공모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바이오산업을 21세기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금년도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과제 공모요강을 발표했다. 금년도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과제 지원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지원대상 분야는 경북 미래 생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고 산업화가 가능한 과제로서 건강기능식품, 한방바이오, 생물농업분야 등 바이오산업 전 분야이며 사업신청서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접수하며, 사업성 검토 등 공개평가를 거쳐 11월초 도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벤처협회 9주년 창립 기념식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배희숙)은 지난 9월 19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9주년 창립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여성벤처 여성벤처

기업인과 모범근로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인의 안정과 발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설립 이후 여성벤처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마케팅, 기술, 경영 지원 등을 중심으로 여성벤처인을 선도하는 대표 단체이다. 협회는 올해 각 지역의 여성벤처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4월과 8월 각각 대전지회와 대구 경북지회를 창립했고 호남지회의 창립을 앞두고 있다.